

육성 채록·1273명 소송원고·일기 등 총 1670여 점

故 이금주 여사의 기록물은?

40년 간 피해자 소송하며 쓴 일기
위안부·미쓰비시정신근로대 등
각종 소송자료 다수 포함
광주유족회 자료도 방대하게 남아

광주시가 고(故) 이금주 여사의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로 함에 따라 수천점에 달하는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여사가 남긴 기록물은 총 1670여 점에 달한다.

그는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권운동가다.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는 1988년 결성 이후 피해자의 권리를 정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장 앞서 대일 투쟁을 선도해 왔다.

그는 "내가 적국에 소송하러 갈때 마다 치욕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약을 먹고 죽고싶다"면서 "왜 적국에 가서 우리 피해를 이야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탄탄을 했다.

이 여사는 결국,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활동을 기록물로 남겼다. 일기로 매일매일 자신의 활동상황도 남겼다.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가 남긴 기록물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곧 역사의 자재이자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증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증명하는 역사적·법적 자료이자,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인권 회복 운동의 직접 증거자료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록은 이 여사의 일기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40여년간 직접 작성한 체계적 기록이자 역사다.

친필로 작성 된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고 작성 시기와 정보가 명확해 세계적 인권사·전시 피해사 맥락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일제강제동원 관련 동원자 명부와 해외수집 자료도 있다.

눈길을 끄는것은 광주천인소송 관련 자료다.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으로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피해자 1273명을 원고로 일본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긴 기록물이다.

운동의 전 과정(피해자 접촉 → 증언 기록 → 소송 진행 → 결과)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강제동원 피해 관련 기록 중, 민간 여성 지도자가 수집한 전 과정을 포괄한 기록은 유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 기록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키시마폭침사건 소송(1992~2004년), 일본군 '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소송(1992~2003년), B·C급 포로감시원



1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이국인 이사장이 이금주 여사의 자택에 걸려 있던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현판과 기록물을 보여주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소송(1995~2001년), 미쓰비시여자근로정신대 소송(1999~2008년), 후지코시여자근로정신대 소송(2003~2011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요구 소송(2006~2014년) 자료도 포함됐다.

일본 소송은 모두 17년 기간당하는 등 대부분 실패했지만, 피해자들의 줄기찬 노력은 결국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고 2018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단초가 됐다. 그 중심에 광주가 있었고 이금주 회장이 있었다는 것을 실증한다.

광주유족회 관련 자료도 방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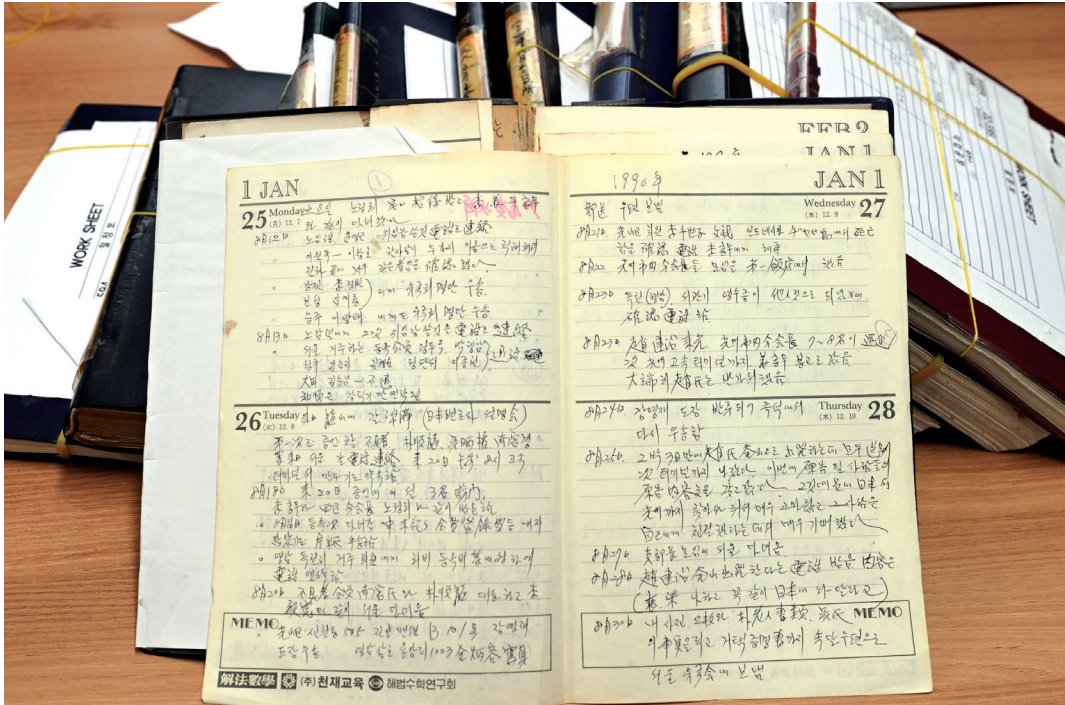
광주유족회 임회원서, 주소록, 광주유족회 월례회 회의록, 국내외 팩스 송수신철, 공문철, 국내외 신문스크랩 모음철, 후생연금 조회 신청철, 광주유족회 회계장부 및 각종 영수증철, 광주유족회 성명서 및 기자회견철, 각종 유인물 및 자료철 등까지 모든자료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재정·운영 기록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운동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광주유족회 활동·피해자 기록 영상과 해외(일본) 영상자료 뿐 아니라 활동 당시 행사 용품 등도 보존되고 있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족네트워크대표(前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위원회 조사과장)는 "이 기록물은 한 개인이 남긴 방대한 평화와 인권의 기록물로 강제동원 피해자 1000명의 소송을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면서 1000명 각각의 피해내용과 소송내용을 담았고, 소송진행 과정을 고스란히 남겼다"면서 "임회원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일본 변호사들과 주고 받은 팩스, 그 과정에서의 남긴 일기와 회의록 등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명예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금주 여사의 일기에 담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270여명의 소송 기록.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안보와 통상

트럼프, 안보 청구서 내밀 듯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이뤄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통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거나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협상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안보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른바 '한미 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

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한반도의 안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며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를 관세협상의 지렛대로도 검토하는 등 증액에 열려 있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도대로라면 미국이 50%에 가까운

인상을 원하는 셈이기에 협상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의제들을 양국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의 이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과제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설명에 미묘한 온도 차가 노출된 만큼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되느냐도 주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15일 10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항일·민주주의 역사 숨 쉬는 광주역에서 개최

광주시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항일·반독재·민주주의 역사가 숨 쉬는 광주역에서 개최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광주역 수화물주차장 부지에 조성된 창업거점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이하 스테이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광주의 시간, 기억에서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독립유공자·유족(광복회원), 국회의원, 시·구 의원, 기관장,

시민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항일·민주정신과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복 이후 광주의 80년을 기억하고,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첨단산업, 문화 역량으로 펼쳐갈 앞으로의 80년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

첨단산업·문화역량으로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 광주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아 광주의 창업거점 '스테이지(STA·G)'에서 경축식을 갖는다.

광주역 수화물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스테이지

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켜본 곳이다.

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기념사(광복회 광주시지부장),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시민의 기억과 희망', 경축사(광주시장), 기념공연(CBS소년소녀합창단·빛고을댄스),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경축식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별 연출도 준비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기념영상 직후,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광주의 미래비전을 함께 그리는 장면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민족정기 선양 외에 이러한 4명에게 대통령 표창(1명)과 시장 표창(3명)을 수여식도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